

유망 해외 전시회 뉴스

ITM 2021, 이스탄불 전시회

터키 이스탄불 국제섬유기계전시회(ITM 2021)가 2021년 6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동 전시회는 아시아 및 유럽의 교통 요충지인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개척에 효과적인 전시회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개최된 ITM 2018은 전시 면적 120,000m², 참가국 64개국, 출품업체 1,150개사, 참관객 58,132명(94개국)의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전시회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우리 협회는 단체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참가 신청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주)구일기계공업
- (주)대일테크
- (주)미광기계
- 부광테크
- (주)삼화기계
- (주)이화에스알씨

ITMA 2023, 웹사이트 공개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섬유기계전시회(ITMA 2023)의 주최자인 ITMA Services (President : Sylvia Phua)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2021년 1월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참가업체 모집 및 홍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 2019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TMA 2019의 전시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했다. 참가국 45개국, 출품업체 1,717개사, 참관객 105,298명(136개국)의 실적을 나타냈다.



08 — 14
JUNE 2023
FIERA MILANO RHO
MILAN - ITALY

산·연 소식

다이텍 연구원 견학 : 회원 12개사

섬유기계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업종 간 이해 및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 협회 회원 12개사가 지난 10월 19일 다이텍 연구원(원장 : 최진환)을 견학하였다. 연구원의 일반 현황 및 추진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홍보관과 주요 연구시설을 견학하였다.

참가 업체는 (주)이화에스알씨, 형제정밀기계(주), (주)창림정밀, 젯트기연(주), (주)미광기계, (주)영흥기계, 일신기계, 부광테크, 영일기계, (주)보강시스템 등이다.



다이텍 연구원 본관 앞 기념 촬영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탄소섬유 중간재 제직기 개발 수행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원장 : 성하경)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직기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세폭과 공동으로 「탄소섬유 중간재 (Weaving System) 실증 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제직기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100대 전략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에는 폭 2,000mm 이상 다층직물 제직용 더블헤드 레피어 직기 개발 및 제직기를 프리프레그 제조 장비와 일체화한 직기 개발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직기의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 및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업계와 공동으로 제직기 실증을 진행하여 제직기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동연구원 구조설계팀 정한규 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신규 연구원 채용

전문 생산기술 연구원으로써 섬유기계 업체 지원 및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기계설계, 바이오 및 복합재 연구 인력을 확충하였다. 신규 채용된 직원은 이건희 연구원(바이오융합팀), 정영철 연구원(구조설계팀), 천진실 연구원(복합재융합팀)이다.

❖ 무역 및 시장정보

■ 미국, 베트남에 무역 통상 압박 정조준

미국이 베트남의 대미 수출 흑자에 대해 불만 수준을 넘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해 베트남의 환율 조작이 발견되면, 즉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여 무역 통상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이 미국의 무역 통상 압박 대상이 된 이유는 그 동안 미국이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봤기 때문이며 특히, 올해 1~7월에는 348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베트남이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최근 「포스트 차이나」 제조 기지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 통상 압박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TIN뉴스>

■ 한·미얀마 섬유 공동시험소, 2021년 개소 추진

미얀마에 한국의 섬유 품질관리 제도 및 기술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섬유 공동시험소가 내년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얀마 통상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얀마 상무부 장관이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장관급 경제 협력 채널로서 무역, 산업, 에너지, 투자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출처 : 텍스타일 라이프>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1~8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943,725	1,108,487
전년 대비 증감		-7.3%	+98.6%
국 가 별 (천\$)	중 국	55,813	786,615
	미 국	471,015	9,631
	베트남	83,520	134,477
	일 본	7,279	32,279
	유럽(계)	53,203	60,235

❖ 회원사 동정

■ (주)보우, 싱글페이지 벨트 개발

산업용 섬유가 주생산품인 (주)보우 (대표 : 김복용)는 슈퍼 섬유를 소재로 하는 고강력·고내열성 엔드레스 펠트 (Endless Felt)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섬유, 철강, 유리, 제지 산업의 생산 라인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엔드레스 펠트의 한 품목인 「싱글페이지 벨트」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골판지 생산 라인에 공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수출 판매하고 있다. 개발 이전 국내 수요업체는 일본 및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컸다고 한다. (주)보우는 싱글페이지 벨트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독보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테크노폴리스 공단에 입지해 있는 (주)보우 본사 전경

<출처 : 대구일보, 중소기업 특집>